

氣象實測은 繼續되고 있으며 窟內의 平均 溫度差는 攝氏 約十度程度인데 一九六二年 一年間의 氣象狀況은 別紙와 같다.

續 卅一之

◎ 高裕燮 著 「朝鮮美術史及美學論攷」 印刷中

右論攷는 故 又玄 高裕燮先生의 遺稿集인 卍 同人 黃壽永教授가 向印直前에 原稿의 最終整理를 끝내어 通文館에 넘긴以後 同人들 의 校正을 거쳐 印刷가 進行中인데 四月末—五月初頃에는 發刊될 豫定이다. 李丙燾博士序文 第一部 一九篇、第二部 十篇總二九篇에引得等總四百面이며 目次는 다음과 같다.

(第一部) 一、朝鮮古代美術의 特色과 그 傳承問題 二、佛教美術에 對하여 三、朝鮮美術과 佛教 四、藥師信仰과 新羅美術 五、高麗時代의 繪畫의 外國과의 交流 六、僧鐵關과 釋中庵 七、東洋畫와 西洋畫의 區別 八、朝鮮塔婆槪要 九、朝鮮의 塔塔에 對하여 十、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 一一、「所謂 開國寺塔에 對하여」의 補 一二、佛國寺의 舍利塔 一三、養怡亭과 香閣 一四、高麗陶磁와 李朝陶磁 一五、美術의 韓·日交涉 一六、開城博物館陳列品解說 一七、吳道玄 一八、顯愷之一九、正倉院御物觀記

(第二部) 一、美學概論 二、美學의 史의 概觀 三、現代世界美術界의 歸趨 四、美의 時代性과 新時代藝術家의 任務 五、形態美의 構成 六、現代美의 特性 七、「앞로」의 模倣說 八、「游於藝」 九、郷土藝術의 意義 十、協展觀評

新昌里 甕棺群 發掘調査

金 元 龍

— 第四卷 第五號 通卷三十四號 —

全南 光山郡 飛鵝面 新昌里에 있는 甕棺群은 一九六一年 潭陽郡在任 梁會采氏가 道路邊崖面에 露出되어 있는 것을 發見한 後 寫眞을 보내주어 알게 된 것인데 이번에 그 墓地의 一部를 發掘調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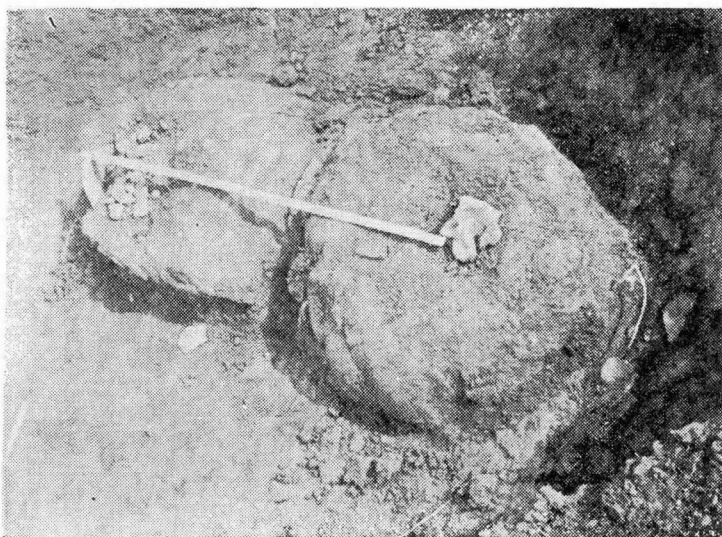
第四卷 第五號 通卷三十四號

發掘은 四月 十五日부터 二十三日까지에 걸쳐筆者가 서울大文理大考古人類學科 第三學年學生 九名과 함께 作業하였으며 俞門龍氏가 實測을 擔當하였다.

遺蹟地는 光州西北方 七km 地點 光州——長城 國道 바로 路邊에 있는 臺地며 이 臺地南方에는 榮山江流域의 平野가 展開되고 江津너로 光州市와 對하고 있다. 이 遺蹟地는 標高 一〇〇m 程度의 秃山의 山脚이 南쪽으로 緩傾하며 畔고 있는 尖端이며 여기를 道路가 지나가고 路面으로부터 二—三미터 程度의 崖面을 만들고 있다. 여기 土壤은 붉은 粘土이며 發掘地點은 보리밭으로 되어 있지만 其他地域은 잔디에 덮히고 鄭氏門中의 墓地로 되어 있다.



甕棺이 묻혀 있는 總面積은 地表에 散亂된 破片 및 試掘坑에 依하면 最小 約四〇m 平方을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發掘面積은 東北四m 南北二十八m 로서 道路面에 가까이 道路와 平行하는 長方形區域이 있으며 이面積안에서 都合 五十四개의 甕棺이 發見되었다. 이들은 모두 現地表下 三—四〇cm 程度의 깊이에 粘土層을 바닥으로 하고 水平位置(그러



은 日本彌生式 前期와 後期에서 보는 것처럼 小兒 또는 幼兒用的 棺이고 이 墓地가 아이들을 위한 共同墓地임을 말하고 있다.

採集遺物로는 地表에서 靑銅製 劍把頭飾 一、扁平磨石斧 一、埋葬層에서 磨石鏃 一、鐵片 二、棺內에서 鐵片 一、그리고 棺外에 副葬品으로 놓여 있던 小坩 三이 있을 뿐이며 棺內에 充滿된 土壤속에는 人骨이 散은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것이 있었으나 骨片, 其他 副葬品은 하나도 없었다. 劍把頭飾, 石斧, 石徑은 이 甕棺時代에 屬하는 것이겠지만 副葬品은 아닌 듯 생각된다. 아무 副葬品 없고 封土도 없는 어린이 埋葬이었다고 생각된다.

나 地面傾斜를 따라 東側即 頭部가若干 높음)로 묻혀 있으며 東西를 長軸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얇게 묻힌 까닭으로 耕作時에 가래로 잘리워 上半部 또는 全部를 破壞當하고 있는 것이 殆半이며 完全한 것은 八個에 不過하였다. 甕棺은 大小 두 개의 廣口狹底甕을 合한 것이 殆半이지만 세 개를 合친 것도 있었다. 그런데 全長 六一七〇cm가 普通이고 最大의 것이 全長 一·三m에 이

이 甕棺群의 時代·性格 등에 關해서는 앞으로 報告書속에서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速斷을 내리려 하지 않으나 넓은 意味에서 所謂 金海時代의 어느 部分에 屬할 것이며 짧은 一雙의 손잡이, 石粒이 섞인 粗質胎土等은 金海甕棺보다 東萊甕棺과 恰似하다. 發見遺物이 貧弱해서 年代決定 등에 困難은 느끼지만 至今까지는 처음 發見된 甕棺群集地였으며 유리나라는 勿論 日本의 甕棺研究上 貴重한 新資料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더구나 그것이 다음 三國時代에 있어서의 甕棺盛行地에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이 興味있으며 過去이 地方 三國時代 甕棺墓가 時期的으로나 地理的으로 分離·獨立된 것으로 보고 「아마 日本人의 墓였을 것이다」라고 推測한 過去 一部 日本人學者들의 說이 成立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發掘을 위해 여러가지로 協助해 주신 全南道文化課 여러분 全南道文化財委員會의 魯錫僎, 梁會采, 丁鍾俠 諸氏에게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金銅如來立像과 菩薩立像

秦 弘 燮

最近 大邱에서 優秀한 金銅佛像 二軀를 調査하였다. 아마도 地下에서 出土되었으리라 생각되나 出土地는 不明이고 發見時期는 數年前인 듯하다. 註 모두 保存狀態가 良好하고 彫刻이 매우 優秀하여 여기 記錄하여 두고자 한다.

(1) 如來立像

또렷또렷한 螺髮에 肉髻가 比較的 크다. 눈은 鳳眼이며 兩眉는 半月形, 여기서 흘러내린 鼻梁은 突出하다. 兩耳는 그다지 긴 편은 아니고 口唇이 똑똑하다. 兩頰에는 그다지 살이 없는 便이고 三道가 뚜렷하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胸部는 露出한데다가 左肩에서 비스듬히 늘어진 法衣